

##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주최 조찬 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세이에르 경제인연합회 회장,

갈루아 불·한 최고경영자클럽 회장,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프랑스 경제인연합회와 두 나라 경제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경제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밝은 전망도 있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나 전망보다 실질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앞서 대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투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시작한 지 40여년만의 일입니다. 그중 80% 이상이 최근 7년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개방성, 그리

고 장래 비전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경영환경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기업·금융 개혁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투명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고,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확보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물류와 IT 인프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인천공항과 부산·인천·광양항 등을 갖춘 물류의 경우 한국과 중국간 운송비는 중국 내륙에서보다 저렴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동기는 지식경제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제 상품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일례로 외국인투자가 주식시장 총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고, 일본·아세안·유럽자유무역연합과도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부산·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조세감면, 원-스톱 서비스, 현금 지원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성장할 잠재력과 비전입니다. 이제 곧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고, 이것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면 한국은 명실공히 유라시아와 태

평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부산항이나 광양항에 들어온 물류가 철도를 통해서 이곳 파리에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넓은 소비자층, 그리고 세계 선두권의 정보화 기반은 한국을 디지털 신제품의 시험장이자 IT 중심의 첨단기술 R&D 허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풍부한 연·기금 자산을 토대로 자산운용업에 특화하면서 채권·주식·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인 여러분,

한국 경제는 물론 도전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북핵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에게 핵 포기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핵무기로는 그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핵 포기만이 세계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외무역의 3분의 1 이상을 우리와 하고 있으며, 남북이 함께 건설한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이 생산됩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던 노사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강경 일변도의 투쟁방식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과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한국 경제인들도 올해 노동쟁의의 강도가 작년에 비해 훨씬 줄었다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수 부진과 고유가 등에 기인한 최근의 경기둔화 문제입니다. 소비를 위축시켜 온 주요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년간의 조정기를 거쳐 이제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을 운용해서 경기둔화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등에 앞당겨 투자하는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서비스 산업, 지식기반 산업, 하이테크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 고자 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불간 교역규모는 올해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3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160여개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고, 까르푸나 르노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나라의 경제규모와 상호보완성을 고려할 때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일례로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시장, 나아가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생명공학·나노기술·항공우주·고속철도·원자력·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보통신·반도체·조선·자동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거대한 중국 시장은 물론 극동러시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의 요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하이닉스, 생고뱅과 한-글라스 등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동북아와 그 관문인 한국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투

자하십시오. 한국을 거점으로 삼아 중국, 극동러시아, 일본으로 진출하십시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와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있어 유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간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최고경영자클럽 합동회의도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